

未婚母 54%가 工團여성

근로청소년 性교육 허술

30%가 “婚前순결 따지는것은 낡은 생각”

우리 경제발전의 원동력 구실을 하고 있는 근로청소년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해, 성교육에서도 받쳐주지 않는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미혼모와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과반수 미혼모의 37%가 과반수 청소년을 낳아, 더 나아가서는 문제를 안고 있어 기업체와 사회의 관심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가족계획협회는 인간근로청소년의 성행위를 분속하고 기존 청소년 성교육자료를 검토, 근로청소년의 새로운 성교육반향을 제시하기 위해 12~13일 水安齋 파크호텔에서 “근로청소년대상 성교육개발 심포제엄”을 열어 논쟁을 벌인다.

가족계획협회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직장에서의 성교육을 받은 사람은 55.5%의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연구원에 서울 시내 3백10명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54%가 청소년기부터 상대 미혼부의 37%도 같은 근로자였다고 이들 미혼부의 연령분포는 16~30세이며 임신한 여자와 아이에 대해 대부분 책임을 회피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심포제엄에서 발표에 나선 李英慈씨(주식회사 부흥기숙사 사장)는 이같이 청소년들이 성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 “이들이 특별한 성교육이 해안사가 아니라 술집 다방 TV장거리를 자기하는 문화속의 살면서 체제있는 성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가운데 근로청소년들이 정이 그리워서라도 애까지 위해 쉽게 동거에 빠져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성교육도 중요하지만 남성들에게 대한 성교육이 시급하다는 것.

가족계획협회 및 노동부가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내놓은 성교육자료를 분석한 李時伯교수(서울대보건대학원)는 △근로청소년의 성문제는 가족 직장 사회의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청소년의 성교육자료는 청소년의 단순한 성적충족에서 생기는 것으로 묘사된 △남녀의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 임신의 의미와 윤리 및 인적형성의 성교육과 제로 제시되지 못하고 생물학적 성지식만 나열된 점 △성의 개념,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에만 다뤄져 있는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가족계획협회 李亮載부녀청소년부장인 진을 떠나 일하는 근로청소년이 대부분 인간을 자기인체에서 부모의 인체에서 체계적인 성교육을 받도록 제언한다. <金順德기자>



어느 공단근로자들의 즐거운 한때. 이들이 성에 대해 건전한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올바른 성교육이 요청된다(사진은 특정사실과 관계없음).